

## 삼두박근 보존 도달법을 이용한 주관절 전치환술 Triceps Preserving Approach for Total Elbow Arthroplasty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이주엽 · 양성철 · 송주현

### 목 적

주관절 전치환술 시 도달법에는 삼두박근 분리 도달법(triceps splitting approach), 삼두박근 견인 도달법(triceps reflecting approach) 등이 많이 사용되나, 삼두박근을 주두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전력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자들은 삼두박근을 주두에서 분리하지 않는 삼두박근 보존 도달법(triceps preserving approach)을 이용하여 주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삼두박근 보존 도달법을 이용하여 주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자가 3예, 남자가 1예였으며, 평균 연령은 52세였다. 주관절 질환은 류마티오이드 관절염이 2예, 외상성 주관절 불안정성이 1예, 주관절 재치환술이 1예 있었다. 측와위에서 주관절의 후방에 절개선을 가하고, 삼두박근의 내측 및 외측으로 접근하여 박리하였다. 인공관절의 삽입은 삼두박근의 외측으로 주관절 탈구시켜 시행하였다. 술 후 신전위에서 1주일간 고정한 후 능동적 관절 운동을 허용하였으며, 최종 추시 시 삼두박근의 신전력과, 관절 운동, Mayo elbow performance score를 측정하였다.

### 결 과

평균 수술 시간은 115분이 걸렸으며, 인공관절의 삽입 시 시야가 부족한 경우는 없었다. 술 후 감염이나 척골 신경 마비, 삼두박근 파열 등의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 삼두박근의 근력은 good이 3예, fair가 1예 있었으며, 삼두박근의 약화를 호소한 환자는 없었다. 평균 관절 운동은 10~126도이었으며, Mayo elbow performance score는 85점이었다.

### 결 론

주관절 전치환술 시 삼두박근 보존 도달법은 적절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삼두박근 약화 등의 심각한 합병증 없이 조기에 재활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도달법으로 판단된다.